

NEW WORDS

한국어감추기

1. troubled	걱정하는, 고민된	2. contemplate	고려하다	3. tongue	혀
4. terrifying	무서운	5. useful	유용한	6. cure	치료제, 낫게 하다
7. blade	칼날	8. heal	고치다	9. pause	잠시 멈추다
10. illness	병	11. courage	용기	12. despair	절망

NEW EXPRESSIONS

한국어감추기

1. the organs of the body	몸의 기관들	2. to do something for him	그를 위해 무엇을 하도록
3. double bladed sword	양날이 있는 칼	4. the potion of love	사랑의 물약
5. a pot of poison	독약	6. in the form of a sword	칼의 형태로

READING

Reading 1	God was very troubled while making humans. God, who was contemplating how to make the organs of the body, asked an angel to do something for him. " Get me a double bladed sword! And bring me the potion of love and a pot of poison. " The angel brought them to God. God put the potion of love on one side of the blade and poison on the other.
Reading 2	God made the human tongue out of it. The angel asked God. " Why did you put them on the tongue? " " Because this is the most important thing to humans. Depending on how they use the tongue, it can be both a terrifying weapon and a useful cure. "
Reading 3	God kept talking. " The tongue is like a blade " " People will hurt others with their tongues. " " On the other hand, if they use it well, then the tongue will become like a doctor. " " It will also heal an illness of the mind that even a doctor cannot cure. "
Reading 4	God paused and looked at the angel in silence. And he continued. " This is my concern. Will they use their tongue well? " " With this in mind, I want humans not to forget this fact, so I made it in the form of a sword. "
Reading 5	This gives people courage and also despair. It can be a medicine that is more effective than any other medicine, and it can be a poison that causes pain. This can lead people to heaven and also to hell. This can give a person hope, or completely give up on the future. This is the tongue of a person

해석

Reading 1	신은 인간을 만드는 동안 무척이나 고민을 했다. 몸의 기관을 어떻게 만들 것인지를 고민하던 신은 천사에게 심부름을 시켰다. “양쪽에 날이 있는 칼을 하나 구해 오너라! 그리고 사랑을 담은 물약과 독약을 준비해 오거라.” 천사는 그것을 신에게 가져다 주었다. 신은 칼의 양날 한쪽에 사랑의 약을 다른 한쪽에는 독약을 발랐다.
Reading 2	신은 그것으로 사람의 혀를 만들었다. 천사는 신에게 물었다. “왜 혀에다 그것을 발랐습니까?” “이것이 인간에게 있어 가장 중요하기 때문이란다. 혀를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이것은 무서운 흉기가 되기도 하고 유용한 치료제가 되기도 하지.”
Reading 3	신은 계속 말을 이어갔다. “혀는 칼날과 같다.” “사람들은 그들의 혀로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낼 거야.” “반면에 이것을 잘 사용하면 혀는 의사가 될 거야.” “의사도 고칠 수 없는 마음의 병을 고치기도 하지.”
Reading 4	신은 말을 잠시 멈추고 조용히 천사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말을 계속 이어갔다. “이게 걱정이란다. 사람들이 혀를 잘 사용할까?” “이런 생각으로 나는 인간들이 그 사실을 잊지 말라고 이렇게 칼의 형태로 만든 거란다.”
Reading 5	이것은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기도 하고 절망을 주기도 한다. 이것은 어떤 약보다도 더 효력이 있는 약이 되기도 하고 아프게 하는 독이 되기도 한다. 이것은 사람을 천국으로 안내하기도 하고 지옥으로 데려가기도 한다. 이것은 사람에게 희망을 주기도 하고 미래를 완전히 포기하게 만들기도 한다. 이것은 바로 사람의 혀이다.